

1940년대 분위기 고스란히 살린 흑백 영상

영화극장 '그 남자는 …'(KBS1·18일 새벽 0시30분)

Top 채널 톱

'그 남자는 거기 없다'는 윌리우드의 대표적인 형제 감독 조엘과 에단 코엔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작품, 1940년대를 배경으로 살인사건에 말려드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렸다. 늘 과파한 상황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코엔 형제 특유의 분위기가 살아 있다.

주연인 프레시스 맥도먼드는 조엘 코엔의 아내로, '파고'에도 주연으로 출연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연기파 배우다. '몽크'의 토니 살롭이나 최근 스타가 된 스칼렛 요한슨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독특하게도 컬러로 촬영해 흑백으로 프린트된 영화, 몇몇 국가에서는 컬러판으로 수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깐느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데이비드 린치 감독(더홀랜드 드라이브)과 공동 수상했고, 로저 디킨스가 LA 비평가협회 황금상상을 수상했다.

1949년 캘리포니아의 산타 로사, 에드는 출판사를 피우는 이발사로, 한적한 이 마을에서 아내 도리스와 함께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는 도리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백화점에서 경리로 일하는 아내의 외도 상대가 사장인 '빅데이브'라는 것을 알게 된 에드는 이것이 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TV → 하이라이트

…프로젝트'란 비밀 문서 발견

BMX(자전거) 신동! 타제훈



일요일이 좋다(SBS·오후 5시40분)=타제훈의 운동 신경에 전문가도 놀랐다. 타제훈은 'S-MATCH'에서 BMX(Bicycle Moto Cross) 묵지자전거에 도전했다. 타제훈은 BMX에 처음 도전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실력을 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BMX 전문가인 20여년 경력의 전상철 대표감사도 타제훈의 놀라운 운동 신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드 스타들 고뇌어린 연기 불만

한국영화특선 '세조대왕'(EBS·밤 11시)=신영균·허강장·송재호 등 시대를 풍미한 올드 스타들이 펼치는 고뇌어린 연기,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풍스런 궁궐의 비경 등 곳곳에 잔잔한 불거리를 제공해 준다. 역사의 격

랑속에 괴로워하는 절대자의 비극, 단종을 몰아내고 수많은 충신들을 살해한 다음 스스로 왕위에 오른 세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불교에 귀의한다.

실화 바탕 사회 부조리 파헤쳐

케이블 하이라이트

얼굴(XTM·오전 11시35분)=어느 시골 지방에 좌천된 경찰관의 눈을 통해, 지역 유치들의 권력과 유착관계, 뿐만 아니라 부조리를 그린 영화 '얼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펼쳤던 조현아가 주연을 맡았고, 코미디언 임하룡이 악역을 맡아 진지한 연기를 펼치며 정식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한 작품이다. 김순경(조재현 분)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시골 마을 신선면으로 전출되어온다.

창업 24년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국제보청기 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서석점(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충교건너편) (062) 225-9970

국제보청기

정은아의 i콘서트

00:00 정은아의 i콘서트